

# 베네수엘라 정전에 약탈 사태...신생아 수십명 사망 소문도

### 두 명의 대통령 사태로 정치·사회적 혼란...시민들 연일 분노 마두로 대통령, 미국의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전력 전쟁' 규정 과이도, 전력관리 실패 임시국회 소집 통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두 명의 대통령 사태로 인한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발생하며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정전을 틈탄 약탈까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베네수엘라 23개 주 중 최소 2개 주에서 정전 등 혼란을 틈탄 약탈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었다. 마

두로 정권 하의 보안군은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비상사태에 취약한 환자들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베네수엘라 동북부 마루린 지역 병원에서 10여명 이상의 환자 사망 보고가 이뤄진 데 이어, 서부 도시 마리카이보에선 신생아 수십명이 사망했다는 소문도 돈다. 근로자들의 업무 불편도 심화됐

다.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주요 국제공항 세관원들은 휴대전화 플래시를 이용해 승객들의 여권을 확인해야 했다. 아울러 통신 두절로 인해 차량 지붕에 올라가 신호를 잡으려고 하는 이들도 있다. 가디언은 이같은 모습에 대해 "밤이 되면서 카라카스의 거리에선 종말론적 영화의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묘사했다.



마두로 과이도

시민들은 연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정전 사태를 겪은 베네수엘라 시민인 알레한드로 구스만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좌

절과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베네수엘라) 마치 그림자 도시 같다"고 했다. 마를레네 마르케스는 건물 16층에 거주하는 노부부가 정전 기간 밤이 묶인 사실을 거론하며 "나는 부모님을 방문했을 때 훗날로 길을 밝혀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냉장고의 고기들은 물론 차갑게 보관해야 하는 약도 상한다"고 했다. 투석 환자인 남편을 둔 조리아다 코르도바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 중"이라고 했다. 그의 남편은 정전 사태로 인해 나흘 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아권은 정전 원인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9일 집회에서 이번 정전사태를 자신을 미국의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백악관 배후의 '전력 전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아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임시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의 전력관리 실패를 정전 원인으로 규정하며 임시국회 소집을 통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공언했다. 과이도 대통령은 "현재 베네수엘라에서의 삶은 SF영화와 같다"고 했다. 볼리비아 전 대통령인 호르헤 키로가는 트위터를 통해 "베네수엘라 는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이라며 "몇 시간 안에 매드맥스 영화의 초 현실적 디스토피아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에 정전사태까지 계속되면서 10일 일부 전기공급이 복구된 주유소마다 차량행렬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그 앞을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가 정전돼 시민들이 깜깜한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다. 이번 정전으로 카라카스의 많은 직장인이 지하철 운행이 중단돼 걸어 서 퇴근하고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에서는 차량이 서로 영키는 등 혼란을 빚었다.



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가 정전되면서 지하철 등이 마비돼 시민들이 버스에 몰리고 있다.

## WP "베네수엘라 정전사태로 17명 사망...의료진도 부족"

베네수엘라 대규모 정전 사태로 약 17명의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아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임시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사망 사건 중 15건은 베네수엘라 동북부 마루린 지역에서 발생했다. 의료지원 단체인 코메비나는 이보다 적은 수인 15명이 전력 부족으로 인해 신부전으로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를로스 알바라도 베네수엘라 보건부장관은 국영방송을 통해 전력 부족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수치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WP는 이들 수치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고 덧붙였다. 이른바 '두 명의 대통령' 사태로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선 지난 6일부터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이어져 왔다. 마두로 정권은 발전소에 대한 전자파 공격이 정전 원인이라고 주장

존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갖추지 않은 병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정전으로 인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 중단으로 의료 인력들이 제때 출근하지 못하면서 베네수엘라 소재 병원들은 의료진 부족

이문다리아에 따르면 최근 탈수 증상을 보여온 그의 5개월령 아들에게는 10일 오전 체온 저하 등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병원 직원들이 소아과 의사를 찾아다니는 동안 사망했다. 그러나 병원장인 일 시소는 병원이 발전기로 전력을 공급 받고 있으며, 전력 부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소는 대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부터 시행돼온 국제적인 봉쇄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WP는 그러나 그가 인터뷰에 응하기 전 통료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고 전했다.



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가 정전되면서 한 산부인과의 분만실에서 산모 가족들이 걱정스레 대기하고 있다.

"5개월령 아이, 병원 왔으나 의사 찾던 중 사망"

보건부장관 "전력 부족 사망자 수치는 거짓"

하고 있다 반면 과이도 임시대통령은 정전 사태가 정비 미비 등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원인이 어찌됐든 전력 부족 사태로 인해 주요 병원들은 발전기에 의

에도 시달리고 있다. WP는 이와 관련 이날 베네수엘라 중앙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잃은 24세 베네수엘라 여성 알렉산드라 이문다리아의 사연도 보도했다.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